잠언서에 나타난 부(富)의 가치와 활용에 관한 연구

황봉환 (대신대학교 교수)

1. 시작하는 말

1.1 문제의 제기

현재 인류는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요하기를 원하며, 또한 행복하기를 원한다. 문제는 물질적 부를 소유하여도 행복하지 못한 자들이 많고 또한 물질적 궁핍으로 인하여 불행한 자들도 없지 않다. 이것이 부와 행복이 지니고 있는 역설의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행복이란 긍정적인 감정 상태, 또는 의미와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느낄 수 있는 기쁨"이라고 말한다(Shawn Achor, 2012).[1)]

물론 인간이 느끼는 감정적인 면에서는 행복의 일반적 정의에 동의하지만 성경의 관점에서는 내적 행복과 평안은 하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부터 오는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생활이나 상태는 물질적 부와 관련이 없는 것인가? 물질적 부가 삶의 행복과 관련이 있다면 행복하게 하는 일에 재물의 소유와 번성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직한 부자가 되는 청부와 자발적인 가난을 선택한 청빈의 삶을 잠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 제기가 잠언 성경이 말하는 부와 복에 관한 그리스도인의 이해를 도울 것이다.

1.2 논문의 목적과 논지의 방향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부의 원천이 어디에 있으며, 물질적 부가 인간 행복에 기여하는 가치와 역할이 무엇인가를 잠언서를 통해 연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따라 2장에서는 잠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와 복에 대한 성경적 분석을 이끌어 내고, 물질적 부와 복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복(blessing)이 곧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가를 연구할 것이다. 3장에서는 잠언 성경을 통해 부의 근원, 가치와 소유 그리고 번성과 활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행복한 부자로 살기 위한 신자들의 믿음과 삶의 균형을 논해야 한다. 4장에서는 부와 관련된 잠언의 가르침이 청부와 청빈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검토할 것이다. 그리고 오늘의 그리스도인은 부와 가난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려고 한다.

2. 잠언서에 나타난 부(富)와 복(福)의 대한 내용 분석

2.1 잠언이 말하는 부(wealth)

8:18 "부(riches)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10:4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wealth)하게 되느니라"

10:15 "부자(the wealth)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

1) 노스캐롤나이나(North Carolina) 대학의 유명한 행복 전문가 바버라 프레드릭슨(Babara Fredrickson)은 행복과 관련된 가장 보편적인 열 가지 감정을 기쁨, 감사, 평온, 관심, 희망, 자존심, 즐거움, 영감, 경외심, 사랑이라고 규정했다.

11:4 “부(wealth)는 진노하시는 말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11:16 “근면한 남자는 부(wealth)를 얻느니라”
11:24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yet gains even more) 일이 있나니”
11:28 “자기의 부(riches)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12:27 “사람의 부귀(his possessions)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13:8 “사람의 재물(riches)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13:11 “망령되이 얻은 재물(money)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13:22 “죄인의 재물(wealth)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14:20 “부요한 자(the rich)는 친구가 많으니라”
15:16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wealth)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8:11 “부자(the wealth)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18:23 “부자(a rich man)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19:4 “재물(wealth)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19:14 “집과 재물(wealth)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21:17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be rich)하게 되지 못하느니라”
22:2 “가난한 자와 부한 자(rich)가 함께 살거니와”
22:7 “부자(the rich)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23:4 “부자(to get rich) 되기에 애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23:5 “정녕히 재물(riches)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27:24 “대저 재물(riches)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28:6 “가난하여도 성실히 행하는 자는 부유(a rich)하면서 굽게 행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28:8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his wealth)을 늘이는 것은 …”
28:11 “부자(a rich man)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나 …”
28:20 “속히 부하고자(to get rich)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28:22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to get rich)을 얻기에만 급하고”
29:3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his wealth)을 잃느니라”
30:8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give me neither poverty nor riches)도 마옵시고”

2.2 잠언이 말하는 복(blessing)

3:33 “의인의 집에는 복(He blesses the home of the righteous)이 있느니라”
5:18 “네 샘으로 복되게(May your fountain be blessed) 하라”
8:32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Blessed are those who keep my ways)
8:34 “누구든지 내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Blessed is the man who listens to me)이 있나니”
10:6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나”(Blessings crown the head of the righteous)
10:22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the blessing of the Lord)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11:11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the blessing of the upright)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11:26 “곡식을...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blessing crowns him who is willing to sell)이 임하리라”
16:20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blessed is he who trusts in the Lord)이 있느니라”
20:7 “그의(의인) 후손에게 복(blessed are his children after him)이 있느니라”
24:25 “그를(악인) 견책하는 자(들)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rich blessing will come upon them)
28:10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the blameless will receive a good inheritance)
28:14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Blessed is the man who always fears the Lord)
28:20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a faithful man will be richly blessed)
29:18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blessed is he who keeps the law)

2.3 부(wealth)와 복(blessing)의 상호 관련성

잠언서는 부(wealth or rich)와 복(blessing)에 대한 주제를 소홀히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그 만큼 이 주제들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잠언에서 이 주제에 대하여 다룰 때 어떤 구절들은 잠언서 외의 다른 성경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물질적 부가 행복을 그리고 물질적 가난이 불행을 가져다주는 요인이 되는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구약의 지혜 문학인 잠언서는 부와 복에 관하여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부와 가난이나 복에 관한 가르침은 개인에게와 사회 공동체에 주는 참으로 유익한 교훈이다. 개인을 향하여 삶의 유익한 길을 제시하고, 잘못을 시정해 주고, 신앙에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제시하고, 바른 길을 걷도록 안내하고 있다. 그럼에도 잠언서의 중심은 여호와 중심 신앙에 초점이 모아져 있다.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잠언이 가르치는 부와 복에 관한 교훈은 개인을 위한 것 같으나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앙하는 일에 유익이 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잠언 9:10)라고 했다. 인간 삶에 근본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잠언은 하나님 백성의 경제생활에 대한 많은 교훈을 제공한다. 특별히 초반 몇 장을 제외하고는 부와 가난에 대한 언급은 계속된다. 그만큼 신자의 생활에 경제적인 면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증거이다. 잠언 성경은 부에 대하여 두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하나의 단어는 ‘rich’이고 다른 하나는 ‘wealth’이다.

첫째, ‘rich’(ploutos, plousios, plouteo)는 물질적부,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rich) 모두에 사용되고 있다. 물질적 부로는 마태복음 13:22; 마가복음 4:19; 누가복음 8:14; 디모데전서 6:17; 야고보서 5:2; 계시록 18:17에 사용되고 있다. 영적이고 도덕적인 부로는 하나님에 의해 소유되고 사람들을 위해 실천하는 것(롬 2:4; 엡 3:16), 복음의 영향력에 의한 부요함(롬 11:12),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이해의 풍부함(골 2:2) 그리고 그리스도의 관하여 은혜, 지혜, 지식, 영광의 풍성함(계시록 5:12; 로마서 11:33; 에베소서 1:7; 2:7; 3:8; 빌립보서 4:19)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wealth’(euporia)는 ‘eu’(well)와 ‘pros’(passage)의 합성어이다. 이 단어는 인간 삶의 편의와 편리함을 위한 풍부한 상태(사도행전 19:25)나 잘 제공되거나 공급되어진 상태 그리고 번성하여 나누는 상태(사도행전 11:29)를 표현한다.

잠언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을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잠언은 강조한다. 한편으로 이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함으로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복(spiritual blessing)을 말한다. 이러한 복에 대한 표현으로 '아쉴레'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잠언 8:32, 34; 16:20; 20:7; 28:14; 29:18). 이는 내적인 평안과 기쁨을 통하여 행복을 소유하게 되는 영적인 복을 의미한다.

다른 한편으로, 잠언 성경은 물질적 소유의 번성으로 오는 복을 말하고 있다. 이 복에 대해서는 '바라크'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있다(잠언 3:33; 5:18; 10:6, 22; 11:11, 26; 24:25; 28:20). 물질적 소유의 번성함 역시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잠언에서 말하는 부와 복은 상호 관련성이 없는 것인가? 영적인 부이든 재물의 번성으로 오는 물질적 부이든 부(wealth)와 복(blessing)은 서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잠언 성경이 부에 대하여 말할 때 많은 부분에서 재물의 번성과 관련하여 부를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내적인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서 얻는 '아쉴레'의 '복'뿐만 아니라 소유의 번성으로 얻게 되는 물질적 '복'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하고 있다. 잠언의 저자는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 영적인 복이든, 물질적 소유의 번성으로 말미암은 복이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따라서 하나님 안에서 부와 복은 서로 다른 역할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관계 속에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물질적 부의 근원, 가치와 소유 그리고 번성과 활용

3.1 물질적 부의 근원

부의 근원에 대한 잠언의 가르침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으면 상당한 오해를 가져오게 만들 수 있다. 왜냐하면 잠언의 저자가 부의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함과 동시에 부가 사람의 근면, 구제, 조상으로부터의 상속 그리고 노동으로부터 온다는 점도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언의 저자는 부와 복과 가난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인생과 만물의 창조의 주인이심을 먼저 선포했다.

>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 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 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잠언 8:27-30).

또한 물질적 부와 재산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언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부귀(riches and honor)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잠언 8:18).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blessing)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잠언 10:22)라고 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부와 복의 주인(the Lord)이심을 증명한 것이다. 하나님은 땅의 창조주이시며, 소유주이시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표현될 때 피조 세상에 대하여 인간은 개인의 독점적인 소유권을 정당화하는데 사용할 수 없다. 물론 이 말은 피조 세상 안에서 물질적 재화를 사유하는 것을 전혀 정당화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지구(땅)의 자원에 접근할 수 있으며,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있다. 잠언의 기자는 부를 창출하는 물질 재화의 근본적인 권리가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선포한다. 여호와께서 선물로 주신 물질적 부는 땅위에 사는 모든 백성이 다 같이 누려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물질적 소유의 번성으로 오는 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신학에 근거해 있다.

3.2 재물의 가치와 소유

재물은 인생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수단임을 잠언 성경은 강조한다. 그러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재물에 두지 않고 있다. 부와 복에 대하여 말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우선이어야 하고 그 신앙으로 인하여 주시는 부와 복에 진정한 가치가 담겨 있음을 말한다(잠언 15:16; 16:20; 28:14). 잠언은 재물과 부 그 자체가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잠언은 물질적 소유의 번성이 인생의 삶에 가져다주는 가치를 폄하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인생 삶에 있어서 재물의 중요한 역할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잠언의 기자는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람의 재물(riches)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잠언 13:8)라고 말한다. 이 말의 의미는 재물이 원수들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과 법에 따라 판결한 형벌로부터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박윤선은 "부자는 자기의 재물 때문에 위험을 면할 경우가 있고"라고 설명했다(박윤선, 1978). 랑게(John Peter Lange)는 그의 주석에서 부자가 법정 앞에서나 혹은 어떤 환경 하에서 그의 부를 속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가난한 자는 재물의 번성으로 인하여 비난이나 위협을 받을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John P. Lange), 1978). 메튜 헨리(Matthew Henry) 역시 부자들은 그들의 부로 몸값을 치르고 자유하게 될 수 있음을 말한다(Matthew Henry, 1710). 그러나 돈이나 부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인간의 생명을 구속하는 속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인간의 범죄로 인한 형벌의 속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 재산이나 물질적 부의 가치 어떠한 상황에 따라 땅 위에서만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는 제한성을 지적한다.

또한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잠언 14:20),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잠언 19:4)고 했다. 잠언 14:20과 19:4는 물질이나 부가 인간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박윤선은 부자로 인하여 친교를 맺는 자들은 아부자들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부자 곁에 있는 자들은 부자의 부로 인하여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만약 부자의 부가 파산하는 날에는 그의 많은 친구들이 그를 떠난다는 것을 지적했다(박윤선, 1978).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과도한 부와 극도의 가난이 하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는 위험성과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다. 따라서 아굴(Agur)은 두 가지 일을 주께 요청한다.

> 곧 허탄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 함이니이다(잠언 30:8-9)

이와 같이 재산이나 재물은 인생의 삶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가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과 비교할 때 그 가치는 한정적이다. 물론 잠언 성경이 물질이나 재산의 무소유를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아굴의 잠언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지나친 욕심 없이 인생의 삶에 필요한 것만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친다. 그럼에도 사람은 그의 개인적 종말(죽음)과 함께 무소유자가 된다. 생명도 물질도 원 주인에게로 돌아간다.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다 내어 놓고 빈손으로 간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한 요소는 재산이나 재물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의 도에 복종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잠언 1:7-8; 2:5; 9:10; 15:16). 또한 잠언은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잠언 22:4)고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피상적이고 제한적인 재물의 가치 때문에 사람들은 재물과 부를 움켜쥐려고 한다. 자신의 절대적 소유로 삼으려고 한다. 경제윤리에 있어서 재물이나 부에 대하여 내가(혹은 우리가) 그것들을 소유해야 한다는 주장은 성경적 답변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소유를 위탁 받아서 일시적으로 차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위탁물에 대한 청지기일 뿐이다. 인생은 어느 누구도 재물과 부에 대한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3.3 재물의 번성과 사용

잠언 성경이 복에 대하여 말할 때 소유한 재물의 번성을 복(바라크)으로 설명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근원으로부터 인간의 부지런함과 정직함과 의로운 행위 그리고 노동을 통해 부의 번성을 가져오게 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잠언 10:4; 11:16; 12:27; 13:11; 28:6). 이러한 구절은 재물의 소득과 번성은 부지런하게 일한 자에의 몫이라는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헛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든다고 하는 사실도 가르친다. 또한 소득이 적어도 의롭게 번 재물이면 그것이 더 가치 있음을 말한다. 그래서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잠언 16:8)고 말한 것이다. 그럼에도 잠언은 재물의 번성이 하나님께 있음을 가르친다.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 틀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잠언 3:9-10)고 했다. 소산물의 번성 역시 여호와께서 주시는 선물이란 점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아무리 재물의 필요하고 가치가 있지만 불의하게 모으거나(잠언 13:11) 악한 뜻을 품고 모으면(잠언, 28:22) 그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 갈 것이다(잠언 23:5).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인과 악인의 물질적 형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잠언 23:17; 24:1).

오히려 잠언 성경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물과 부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 것을 가르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잠언 14:31)고 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언 19:17).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잠언 28:8). 그리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 하려니와 못 본체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니라"(잠언 28:27)고 했다. 가난한 자와 물질이 궁핍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이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윤리적 교훈이라기보다 신앙의 한 부분이라고 보아야 한다. 아무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이미 그는 신앙인이 아니다. 재물은 그것을 모을 때뿐만 아니라 의로운 일에 사용할 때 진정한 가치를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한 사랑의 실천을 위해 사용할 때 진정한 행복을 느끼게 된다.

4. 잠언서의 부: 청부(honest wealth)인가 혹은 청빈(voluntary poverty)인가?

4.1 청부의 성경적 관점과 잠언의 교훈

청부라는 표현을 직역하면 '정직한 부'라는 말이다. 부(wealth)와 관련시켜 설명할 때 정직은 좀 더 넓은 의미로 적용될 수 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소유하고, 정직하게 사용하고, 정직하게 나누어야 한다는 의미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일반적 의미로 청부는 물질적 부의 기본이 되는 돈이나 재산을 모을 때 정직하고 깨끗하게 모으고, 부요하게 되었을 때 모은 부를 하나님을 위한 사역과 경제적으로 궁핍한 이웃을 위하여 나누고, 그리고 남은 부를 자신과 가족을 위하여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직하게 일하여 돈을 모으고 그 돈을 자신과 이웃을 위해 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김동호는 "깨끗한 부자"라는 책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 그 일정한 몫을 교회와 이웃을 위하여 선하게 사용하고, 남은 재물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 감사한 마음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김동호, 2001). 청부의 관점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기도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이 부자가 된다면 번 돈의 일정한 몫을 하나님 사업과 가난한 이웃을 드리는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된 사회적 책임이다. 왜냐하면 창조 이후로 이 세상에는 가난한 자가 끊이지 아니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신명기 15:11; 잠언 22:2). 그런데 성경은 청부 그 이상의 교훈을 주고 있다. 이점을 그리스도인은 명심해야 한다. 부와 재물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부를 부정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정직하게 벌고 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역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와 재물 자체는 악이 아닐지라도 재물의 많은 소유로 인해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되고 신앙의 경건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벌어 부자가 되고 부의 상당 부분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고서도 남은 재물이 많다면 그 소유자는 부로 인하여 누리는 편안함, 안락함, 즐거움, 때로는 돈의 위력을 맛보고 느낄 때 그 부를 신뢰할 위험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의 기자는 이런 말을 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잠언 30:8-9)

이 구절에서 잠언 기자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한 후에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라고 했다. "배부름"은 "필요한 양식" 이상의 잉여 재물을 의미한다. 잉어 재물의 풍족함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망각하는 자만으로 빠져들게 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러므로 주어진 부(wealth)로 끝까지 하나님의 사역과 이웃을 위한 나눔에 동참할 때만이 가난함과 부요 사이에 균형을 유지해 갈 수 있다는 고백이다.

부와 관련된 잠언서의 가르침에 따르면 부의 긍정성을 말한다. 부는 남을 구제하기도 하고(잠언 11:24), 많은 친구를 얻게도 만들고(잠언 14:20), 가난한 자를 주관하게도 하며(잠언 22:7), 부자에게 견고한 성이 되기도 하며(잠언 10:15; 18:11), 부가 생명의 속전이 될 수도 있고(잠언 13:8), 부는 자손들에게 상속의 가치를 더해 주기도 한다(잠언 19:14)고 가르친다. 그럼에도 청부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할 태도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위임된 복음증거, 신자들의 교육과 양육, 가난한 이웃에 대한 구제, 병약한 자들을 돌봄은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물질적 도움이 뒤따라라 가야 한다. 그렇다면 청부가 요구하는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어 넉넉한 몫을 하나님과 자신과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가르침이 잠언의 강조점이라고 생각한다.

4.2 청빈의 성경적 관점과 잠언의 교훈

청빈(voluntary poverty)은 가난을 자발적으로 취한다는 의미이다. 기독교 목회자들 가운데 김영봉은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원하여 가난한 자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직하고 깨끗하게 돈을 벌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만

구제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삶을 즐기는 일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잉여 재물까지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최대한도록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김영봉, 2003). 이러한 그의 주장은 청빈 사상에 가깝다. 그러나 그의 주장에 엄청난 모순점이 있다. 어떻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 남을 구제하는 일이 재물이 부요하지 않고 가능한가? 남을 위해 구제하고 사용하는 것은 부를 전제하고 하는 말이다. 결국 청부를 부정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한다. 이 속에는 물질적 가난과 영적 가난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마태복음 5:3; 누가복음 6:20). 그러나 성경이 신자들에게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고 해서 모든 신자가 청빈해야 된다고 가르치지 않는다. 특별히 신약에서 청빈 사상은 제자도(discipleship)에 기초하고 있다(신원하, 2004).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자가 되도록 소명을 받은 자들은 복음과 함께 부여된 사명(commission)을 위해 헌신해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 외에 돈과 재물에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ㅇ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마태복음 10:5-10; 마가복음 6:8-9; 누가복음 9:3)

복음 사역자로 부름 받은 제자들은 청빈한 삶으로 제자도를 수행해야 하며, 그 사명으로 만족함을 얻고 하늘의 보상을 기다려야 한다. 물질적 부에 관심을 두지 말고 가난한 삶을 자원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부와 재물과 세상 권력이 주는 재미와 수월함에 빠질 유혹을 차단해야 주님만을 온전히 따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히 자발적 가난의 삶은 정직한 부자의 삶보다 훨씬 더 어려운 가르침이지만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 받은 자는 이러한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자들의 육체적 삶은 청빈 할지라도 영적인 삶은 부요하고 가진 것이 많다. 남들이 갖지 못한 영적 지식과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마태복음 10:1). 따라서 자발적 가난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예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거나 청빈 외에 다른 방식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잠언 성경은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라는 청빈 사상을 말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난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잠언 기자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잠언 10:15)이라고 했다. 이는 경제적 파멸과 몰락(ruin)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에게와 이웃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잠언 14:20; 17:7)고 말하며,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끊어진다(잠언 19:4)고 했다. 가난으로 인하여 개인이나 가족이나 이웃 관계가 바르게 형성되지 못함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잠언은 가난한 자는 부유한 자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대상임을 말하고 있다(잠언 14:31; 21:13; 22:9; 28:3, 15). 성경은 “주는 것이 받는 거보다 복이 있다”(사도행전 20:35)고 말한다.

사람이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와 가난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대하여 숙고할 때 어느 것이 인간 삶에 행복함 혹은 불행함을 더 느끼게 하는가? 가난이 불행의 원인이 아니면서도 가난할 때 행복감을 느낀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반대로 부가 제공하는 편안함과 안락함과 효율성을 향유하고 그 부를 신뢰할 위험성을 갖고 있지만 부 자체가 불행함을 가져다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도 부의 위험성을 경고하지만 부가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 피조물에 대한 다스림과 보존의 권한을 위임 받은 사람은 선물로 주신 자연을 통해 생산하고, 소

유하고, 사용하고, 나누어주고, 보존하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며, 인간에게 위임된 권한이다. 청부와 청빈의 관점은 대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물질로 살아가는 인간의 삶에서 서로의 유익성과 위험성을 동시에 가르치며,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중요한 교훈이다.

나가는 말

모든 인생은 그의 삶 속에서 행복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그 행복은 진정 어디로부터 오며,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알지 못하여 오늘도 인생은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 Shawn Achor은[2] 인간의 긍정적 감정 상태(심리)로부터 오는 행복감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이끌어 낸다고 했다. 성공과 물질적 번영이 인간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인본주의적 주장이다. 긍정의 심리학이 인간 삶의 전 영역에 미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세계관을 인간 이성적 세계관으로 바꾸어치기 하고 있다. 인간 이성의 주도적인 산물인 과학의 발달에 기초한 결과를 중요시 하는 반면 하나님의 불변하는 통치적 섭리를 무시하려는 시대가 만들어낸 작품이다.

기독교 관점에서 행복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오지 않는다. 행복의 원천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죄의 용서로부터 얻은 마음의 평안과 기쁨에서 오는 행복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만물을 통한 번성과 소유로 얻은 행복감은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영적이거나 물질적 소유의 부요함은 가난이나 궁핍의 상태를 벗어남으로 주어진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참된 행복은 영적인 부요함과 물질적 부요함을 갖지 못한 가난하거나 궁핍 자들을 돌보며 그들과 나누는 일에 가치 있게 활용할 때 최고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할 행복한 부자의 성경적 교훈이다.

---

2) Shawn Achor은 *The Happiness Advantage* (행복의 특권)이란 주제의 책을 저술한 저자이다.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행복학” 강좌를 기획 강의한 행복학의 권위자이다.

참고문헌

김동호, 깨끗한 부자. 서울: 규장문화사, 2001.

김영봉, 바늘귀를 통과한 부자. 서울: IVP, 2003.

박윤선, 성경주석 잠언. 서울: 영음사. 1978.

신원하, 시대의 분별과 윤리적 선택. 서울: SFC, 2004.

조성표, 알수록 행복해지는 돈의 비밀. 서울: CUP, 2008.

임병진, “요셉을 통하여 본 성경의 부자와 부자의 역할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8(1), 2010, 75-90.

차정식, 신약성서의 사회경제사상. 서울: 한들출판사, 2000.

황봉환, 돈으로 이웃을 행복하게 하는 그리스도인. 경기, 용인: 킹덤북스, 2011.

....., 기독교경제윤리.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3.

....., 크리스찬과 자본주의. 서울: 엠마오, 1996.

....., “이사야서에 나타난 경제 정의와 실천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0(4), 2012, 117-134.

....., “아모스 시대의 사회 경제적 양극화와 종교적 정의에 관한 연구.” 로고스경영연구, 11(4), 169-184.

Achor, Shawn. The Happiness Advantage, 박세연 옮김, 『행복의 특권』. 서울: 청림출판, 2012.

Beisner, E. Calvin. Prosperity and Poverty. Westchester, Illi.: Crossway Books, 1988.

Bridges, Charles. A Commentary on Proverbs. Edinburgh: The Banner of Truth, 1846(1983).

Giddens, Anthony. Sociology. 김미숙, 김용학, 박길성, 송호근, 신광영, 유홍준, 정성호 옮김, 『현대 사회학』. 서울: 을유문화사, 2011.

Henry, Matthew. Matthew Henry’s Commentary on the Whole Bible. vol. III, Mclean, Virginia: Macdonald Publishing Company, 1710.

Horton, Michael S. Where in the World is the Church? 윤석인 옮김, 『개혁주의 기독교세계관』.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10.

Kaiser, Walter C. Toward Old Testament Ethics, 홍용표 역, 『구약성경윤리』. 서울: 생명의말씀사, 1990.

Lange, John Peter. Lange’s Commentary on the Holy Scriptures, Proverbs of Solomon. vol. 5, Grand Rapids: Zondervan, 1978.

Wright Christopher J. H. Old Testament Ethics for the People of God, 김재영 옮김, 『현대를 위한 구약윤리』. 서울: IVP, 2006.